

신안 섬마을 불교잔치 마당 열려

광주지역 재가단체 '섬 불교포교단' 결성 후 암태도서 첫 활동

광주지역 재가불자들이 '섬 불교 포교단'을 결성하고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불교잔치를 열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근)과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엽)은 대한불교진흥원 후원을 받아 '섬 불교 포교단'을 창단하고 첫 행사를 1월 30~31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개최했다.

'노안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기념의식, 문화공연, 어르신 점심대접, 미용봉사, 한방진료, 사찰조경 및 연지공사 등이 진행됐다.

31일 암태도 게이브빌딩에서 열린 기념의식에는 대홍사 총무 도정 스님과 노안사 주지 범도 스님을 비롯해 여규옥 암태연장, 전남도 임흥빈 의원, 주영균 신안농협장, 박덕배 암태여성단체 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정 스님은 격려사에서 "노안사



섬 불교포교단은 1월 30일~31일 신안군 암태도를 찾아 암태도 주민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는 대홍사의 말사지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범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이곳 암

태도까지 와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많은 이들과 함께 사는 계기로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회의식이 열리는 행사장 주변 노인회관에서는 무료한방진료가 진행돼 섬마을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

었다. 한의사 3명의 도움으로 진행된 이번 진료에는 200여 주민이 좁은 섬마을 길을 따라 줄지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씨스리 미용아카데미의 자원봉사로 마련된 미·미용봉사로 암태도 어르신들의 호응이 컸다.

이날 행사에 앞서 30일부터 섬 불교 포교단원들은 노안사에 연지(蓮池)를 조성하고 사찰주변 축대를 정비하는 등 올력을 펼쳤다.

행사를 주관한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섬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암태도 섬 불교에 힘써 도지역 불교 활성화에 큰 힘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안사는 조계종 제22교구 대홍사 말사로 1973년 장건태, 신안군 향토유적 전통사찰 제1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봄 맞아 자비 손길이어져

광주 비전사·금선사 자비의 쌀 전달

입춘(立春)은 봄이 시작하는 날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대문 기둥이나 대불·천장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을 써서 새해를 맞아 좋은 일이 많이 생길라는 뜻이라고 써 붙이는 풍습이 있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실천을 시작하는 광주지역 사람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2월 4일 신도들이 공양을 린 '자비의 쌀' 1800kg을 생량나눔 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와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하남농협 노인복지센터(조합장 박종명), 광주시 월곡2동주민센터(동장 임승순), 두암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나숙희)에 각각 전달했다.

보혜 스님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에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지역의 복지단체에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사찰에서의 기도가 널리 지역사

회에 화답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이주성 센터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 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불자들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비전사는 2004년부터 '자비의 쌀' 1만kg을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왔다. 이번 입춘에는 1인 10kg씩 120여 신도가 동참했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평)도 입춘을 맞아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바라밀실버하우스(이사장 현고),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등에 1000여 kg의 쌀을 전달했다. 쌀과 함께 신도들이 집에서 모금해온 저금통을 자비신행회와 광주공군부대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평 스님은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 실천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자

우리문화연구원, 창립 선포식 개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공동체 우리문화연구원(대표이사 원행·금선사 주지)이 창립선포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문화연구원은 1월 30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창립 선포식을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투자와 지속적인 계승 노력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연구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금선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등 50여 지역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우리문화연구원은 우리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을 결집해 시·군 단위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우리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들을 모아 연구단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창립선포식에서는 지부 결성이 끝난 정읍지부(지부장 일광사 승천 스님), 익산지부(지부장 박종근), 무주지부(지부장 안말순), 남원지부(지부장 윤영호) 지부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원행 스님은 "창립선포를 계기로 소속한 시·군 내 전국 각 지역에 지부를 꾸리고 연구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월 30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봉행된 우리문화연구원 창립 선포식 모습.

“사회적·지구적 삼재풀이 나서야”

광주 문빈정사 법선 스님

광주에는 사찰을 문화공간으로, 소외받는 이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내려는 이가 있다.

2월 4일 경인일 입춘일, 전국 사찰에서 삼재소멸을 위한 기도가 진행된 가운데 광주 무등산 입구에 있는 문빈정사(주지 법선)에서는 특별한 의미의 삼재기도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주지 법선 스님은 "삼재소멸 기도에는 개인적인 삼재(三災)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사회적·지구적 삼재에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삼재풀이인 것 같다"며 "각 사찰의 삼재소멸기도를 사회적 삼재의 소멸을 기원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스님은 "최근 삼재를 당한 곳으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아이티다. 아이티를 돕는 것은 삼재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이티를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선 스님의 원력에 문빈정사 신도들도 동참했다. 문빈정사 신도들은 이번 아이티 삼재소멸기도에 자발적으로 나서, 봉헌과 보시금을 모아 아이티에 성금을 기부했다.

기복적인 기도를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시키기에 앞서 스님은 불교적 가치관의 확립과 신심이 갖춰져야 함을 강조했다.

법선 스님은 "신심을 갖추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불교는 사회적 결여를 극복할 수 없다. 법회 속에서 작은 사회적 실천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예가 사찰에서 하는 발우공양과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이다.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운동 등 불교적 생활 실천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찰법회는 생명존중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법회가 돼야 합니다."

현재 문빈정사는 '지렁이학교'와 '올챙이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지렁이학교에서는 지렁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을 보여줘 불자들에게 자연의 순환 과정, 음식쓰레기로 인한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스님은 "깨달음을 거대한 담론으로 형상화하기보다, 삶 속에서

는 절저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한 바라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스님은 "독재시대에는 독재를 반대하는 것이 실천행이지만, 이제는 자원봉사나 환경운동을 사찰에서 경쟁력 있게 선도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실천과제"라고 주장했다.

문빈정사를 무등산의 문화적 공간으로, 또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법선 스님의 바람이다.

스님은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이 활동했던 1980~1990년대에 무등산족문화회를 통해 암울한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법회와 강연을 했듯이, 문빈정사도 2000년대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법선 스님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을 열었다.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교실은 청소년들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실천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법선 스님의 새로운 바람은 문빈정사에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어 1980년대 민주화와 통일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특히 스님은 "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이다. 환경단체는 무등산의 생태적 복원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산에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살아 있어야 아름다운 산이 된다"며 사찰 주도의 새로운 생태운동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법선 스님의 원력처럼 사찰이 사회를 위한 열린공간이 되고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가 되길 소원하며, 문빈정사 신도들은 입춘기도를 회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주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원스님 지음 / 46면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리종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회와 불교, 사십구제, 천도제, 예수제, 기도 백팔만년, 음 마니 반배 롬,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윤정화·일지 지음 / 46면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면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식 지음 / 46면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면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정화 지음 / 46면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면 양장 / 328쪽 / 값9,500원